

민주당 전대 레이스 시작... '어대명' 유지되나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선 막판 변수로 부상 가능성 17명 후보 등록 최고위원 친명 대 비명 구도 양상 송갑석 의원 호남 최고위원 입성 여부 관심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차기 지도부를 뽑는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역 정치권에선 '어대명' (어치 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의 현실화 여부와 호남 최고위원 단일주자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의 지도부 진출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이재명 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내달 중순께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최고위원 주자들은 20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중앙위원 득표전에 몰두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예비 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이 70%, 최고위원 주자들은 100%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 향방에 따라 예선전 희비가 갈리기 때문이다. 중앙위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광역·기초 지자체장 등 약 400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비경선을 통해 총 8명의 당 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17명의 최고위원 후보자를 8명으로 압축하고 본경선에 들어간다.

후보 등록 완료와 함께 예비경선이 초읽기에 들어가 이재명 상임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당권 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분주한 모습이

다.

본선행 티켓은 3장이지만, 이 고문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자리를 놓고 7명이 다투는 형국이다. 저마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임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은 물론 설훈·김민석 의원도 후보 등록이 무섭게 전국을 돌며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상수(常數)인 이 고문을 빼놓고 보면 예비경선 판세가 안개 속이라는 점도 중앙위원 쟁탈전을 더 치열하게 하는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여론 조사가 30%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박용진·박주민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내 조직력, 계파별 표 분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막판까지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반명(반이재명) 공동 전선'을 형성한 97그룹과 설훈·김민석 의원의 '사전 단

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예비 경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전대 이전인 내달 중순 마무리 지을 예정이어서 '사법리스크'가 본선 막판 상당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만약, 이 고문이 당권 경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대표가 되더라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당권과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당내 여론이 친명과 비명으로 갈리면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흥행보다는 갈등의 후폭풍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이 고문은 전국에 있는 중앙위원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다.

무려 17명의 예비 후보(원내 10명, 원외 7명)가

등극한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선 호남 최고위원 단일 주자로 나선 송갑석 의원의 지도부 진출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전 전당대회에서 호남 단일 주자들이 잇달아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내외에서는 송 의원의 예비 경선 통과를 무난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호남 및 수도권 중앙위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 민심의 저변에도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송 의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분위기다.

다만,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으로 나뉜 경쟁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원외 주자의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도 동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0명이 동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

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우 의원 역시 2020년 9월 지원 대상을 사망·행방 불명·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한정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비판에 부딪혀 통과가 좌초됐다.

우 의원은 이 제정안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 등은 성명에서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을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23일 논의 재개

총선 2년도 안남아 결론 도출 쉽지 않을 듯

수년째 헛바퀴만 돌았던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광산구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행정구역 개편 관련 회의가 열린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강기정 시장과 정무장 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5개 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앞으로 논의 방안을 협의하고 민선 7기에 제시된 조정안에 공유할 예정이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불안정한 선거구 정상화 차원에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추진됐었지만, 정치권과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소지역주의만 부추기고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의 아쉬움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선 8기에 또 다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위

한 회의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다음 총선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는 2014년 시작돼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했다.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 11월 3가지 방안이 도출되고 2020년 11월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준비 기획단은 소·중·대폭 가운데 중폭 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소폭 조정안은 북구 문화동·풍향동·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중폭 조정안은 이에 더해 광산구 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이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 가·다 선거구의 동구 편입, 광산구 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 본회의 통과

유류세 인하 확대 등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투자자 모심

- 1. 자금 - 10억원 이상
- 2. 기간 - 2년~3년 정도
-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